중국 상하이의 1~4월 구미 수출 제한 품목 35% 줄어

유럽 및 미국의 수입 제한 조치에 따라 2006년 1~4월 동안 상하이로부터 이들 지역으로 수출되는 섬유・의류품의 수량이 크게 줄었다.

상하이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상하이로부터 구미로 수출되는 수입 제한 대상 31개 품목의 1~4월 수출액은 도합 9억 3천만 달러로 2005년 동기와 비교하면 35.2%가 줄었다. 미국으로의 코튼제 니트 셔츠, 코튼 내의, 화섬 내의, 울제 바지, 풀 오버 셔츠 등 8개 품목의 수출액은 2005년 동기와 비교하여 모두 70% 이상 줄고 있다.

1~4월은 또한, 제한 대상이 되어 있는 섬유・의류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 많은 품목에서 오른 폭은 20% 이상이었다. 코튼제 니트 T-셔츠, 코바늘 뜨개 T-셔츠에 대하여는 각각 74%, 59% 올랐다. 미국으로의 남성용 울 수트(suits)는 28%, 유럽으로의 화섬 여성용 셔츠는 35% 올랐다.

상하이 세관을 통한 무역액은 중국 전체 무역 총액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세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구미로 수출되는 수입 제한 대상 섬유・의류품에 대하여 수출량 제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수출 코스트가 오르고 있어 중국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이제까지의 가격 우위성을 잃었다. 그것이 수출량 격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미 각국의 수입 업자는 제품의 발주선(發注先)을 인도나 파키스탄, 베트남과 같은 거래 수량의 제한이 없는 나라로 옮기고 있다.

한편 주목을 끄는 것은 수입 제한 대상이 아닌 일부 섬유・의류품의 수출

이 크게 늘기 시작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 연합(EU)으로 수입 제한을 안받는 품목을 보면 상하이 세관을 통하여 1~4월 동안에 이들 지역으로 수출된 코튼제 겉옷의 수량은 251만 4천벌로서, 2005년 동기와 비교하면 91.2%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튼제 여성용 수트는 6.5배 증가한 220만 9천벌이었다. ♣